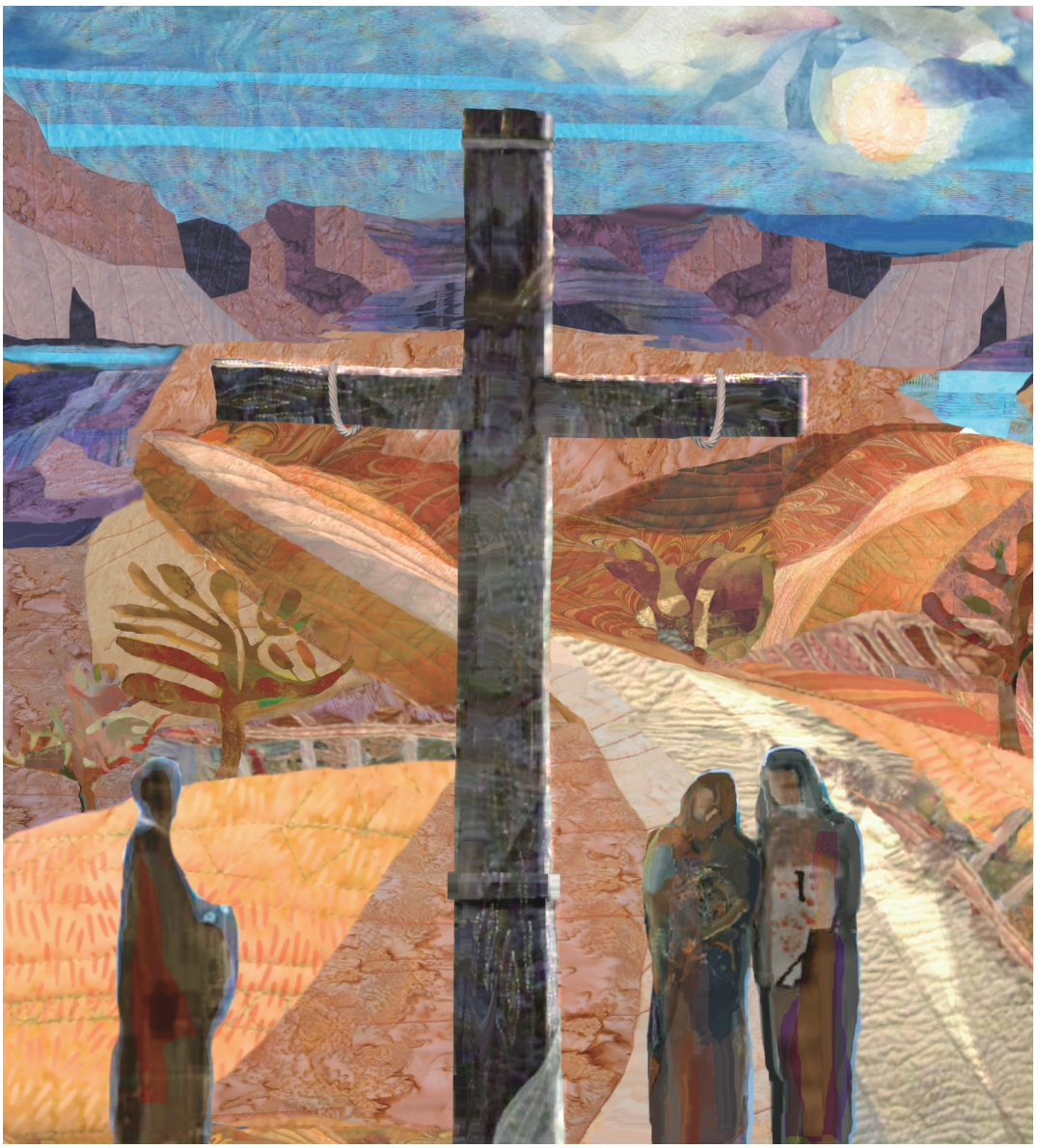
돌아섬

2019 사순 시기 묵상집

2019
LENTEN MEDITATION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여는 글

사순 시기는
온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어머니이자 스승인 교회는
진실이라는 쓴 약과 더불어
사순 시기에 기도와 자선과 단식이라는
달콤한 치료약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침으로써,
우리 마음에 숨겨진 거짓말과 자기기만의 형태를 근절하고,
'자선'은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우리의 이웃을 형제자매로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단식'은 폭력으로 기우는 우리의 성향을 완화시켜
우리를 누그러뜨리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구성원들이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이어 나가며
사순 시기의 여정을 열정적으로 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때때로 사랑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서
꺼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출처 2018 사순 시기 교황 담화문



돌아섬

2019 사순 시기 묵상집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이미지 출처]

〈앞표지〉 Mike Torevell, 「Beneath the Cross」, 2017

〈뒤표지〉 Mike Torevell, 「Who will roll away the stone for us?」, 2017

사순 시기 묵상집은
후원과 기도로 동참하는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마음으로 엮었습니다.
이 묵상집이 여러분 곁에 있고 날마다 읽혀져,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는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길라잡이는
최재도 신부님(원주교구, 마다가스카르 선교)이 집필하였습니다.



03 _____ 묵상 시 1

04 _____ 복음 묵상

43 _____ 묵상 시 2

44 _____ 전례 안내 : 4천 년의 기도, 단식

48 _____ 복음 묵상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미소를 지어
주위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주위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심으신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상대방의 바람에 기꺼이 응하고,
고맙지 않은 사람에게도
절대 싫은 얼굴, 따분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 와타나베 가즈코,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중에서 +

재의 수요일

요엘 2,12-18 / 2코린 5,20—6,2 / 마태 6,1-6.16-18.

03
06

말씀
길라잡이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요엘 2,13)

돌아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몇 년 동안 마다가스카르의 삶을 살고 한국으로 휴가를 갔을 때 참 이상하게도 한국이 제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마다가스카르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제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 집이고,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는 곳이구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마음이 놓이고 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 시기의 시작인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길고 긴 방황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인 당신의 품 안에서 함께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과장되게 치장된 옷은 내려놓고 그저 편한 옷을 걸치고 당신과 함께 머물자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스며듦

변화의 시작

예수님께 권능의 힘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첫 단계는 그것에 대해 강렬한 갈망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정말로 변화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음을 던지신다. 만약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현재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는 것에 만족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제임스 마틴, 『예수, 여기에 그가 있었다 2』

새김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 마하트마 간디

실천 한 가지

성체 조배하며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깨웁니다.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03
07

신명 30,15-20 / 루카 9,22-25.

말씀 길라잡이

'한국 사제는 나 혼자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질문을 가끔 자신에게 던져 봅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 살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시간을 떠올리며,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며 늘 자유로운 선택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에 기쁘게 따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느님께서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신명 30,19)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강요가 아닌, 자유 안에서 우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참존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우리는 더욱 기쁘게 "예."라고 말하며 힘차게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스며듦

고통을 대하는 바른 자세

삶에 의해서 '제시'되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발전과 정화를 위해 허락하신 고통들을 받아들이면서 보다 더 힘겨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결단코 고통 없는 삶, 투쟁 없는 삶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 천국에서는 그런 삶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일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면 쓰디쓴 맛이 언젠가는 아주 달콤하게 변할 것이다.

+ 자크 필립, 『내면의 자유』

새김

시련은 항상, 나 스스로 그것과 과감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변해 있다.

+ 에티 일레쥼

실천 한 가지

지구 온난화 가속화를 막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합니다.

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

03
08

말씀
길라잡이

이사 58,1-9ㄴ / 마태 9,14-15.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이사 58,8)

저는 한국 천주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서 종종 떠올립니다. 한국에서 사목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환경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레 선배 선교사들의 모습을 그려 보며 그들의 힘과 열정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지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열망, 모든 이가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자 했던 마음이 바로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갔던 선교사들의 말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에 주님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와 함께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보이기 위한 겉치레의 단식이 아닌, 온몸과 마음을 바쳐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 건설에 뛰어들고자 하는 단식, 바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주님의 빛을 모든 이가 보고 기뻐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스며듦

신앙

신앙은 회개와 연관된 것이니만큼
우상 숭배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살아 계신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우상들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비뚤어진 우리 역사의 굴곡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듭해서 기꺼이 변모되려는 자세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신앙의 빛』

새김

우리가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 신앙의 인식이 시작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실천 한 가지

내가 가진 결점 10가지를 적어 보고, 그 가운데 1가지를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03
09

말씀
길라잡이

이사 58,9ㄷ-14 / 루카 5,27ㄴ-32.

"나를 따라라"(루카 5,27)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놀랍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닌 어부, 세리 등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고 보잘것없는 하느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오지에 있는 공소를 방문하면 마을 신자 공동체에 살고 있는 교리 교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교리 교사들이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신자들과 공감하며 살았기에 너무나 소중한 협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리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살아 낼 수 있는 고유한 가치와 사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일꾼이자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향기가 이들과 함께 우리 안에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촉촉이 스며들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며듦

소명

소명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 샤를 드 푸코 복자

새김

무언가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사명도 이룰 수 없다.

+ 다니엘 롭스

실천 한 가지

해외에 파견된 선교 사제들의 선교 활동을 돕기 위한 미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순 제1주일 신명 26,4–10 / 로마 10,8–13 / 루카 4,1–13.

03
10

말씀 길라잡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복된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빵과 권력으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유혹을 받으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체험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하십니다.

저는 참으로 좋은 지향과 마음을 품고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구차하고 별일 아닌 문제로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비참한 처지 한가운데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려고 이곳에 왔나?'라는 회의가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을 바라봅니다. 처음에 품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빵만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먼저 찾는 사람, 현존하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질을 끝까지 놓치지 말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스며듦

'포기'와 '향유'

공동체와 개인에게 평화가 깃들려면, 각자가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한편, 욕구 충족을 포기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욕구의 '포기'와 '향유'는 짝을 이룹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즐기지도 못합니다. 먼저 포기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나중에 즐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지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탄 대축일'이나 '주님 부활 대축일'과 같은 대축일 이전에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라는 '기다림과 포기의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 안셀름 그륀,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

새김

비움은 욕심을 만족으로 바꾸고 만족은 가난을 풍요로 바꾸며,
나눔은 이기를 사랑으로 바꾼다.

+ 법상

실천 한 가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 1가지를 절제합니다.

사순 제1주간
월요일

03
11

레위 19,1-2.11-18 / 마태 25,31-46.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말씀
길라잡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수감자들이 400명 정도 되는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유일하게 가톨릭만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수감자들에게 최소한의 식량과 약품을 주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이들을 돌보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마다가스카르의 사회 구조상 돈과 배경만 있다면 죄를 지어도 수감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감자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이들이기에 더욱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도소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연민을 넘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며 가장 좋은 몫이겠지요. 이 좋은 몫을 오늘 여러분도 찾아가서 차지해 보는 욕심을 부리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행복해하실 그런 좋은 욕심은 맘껏 부려도 좋을 듯합니다.

스며듦

연민

연민이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연민의 마음으로 하느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 그레고리 보일, 『덜 소중한 삶은 없다』

새김

가장 진정성 있는 연민이란, 자기중심적인 비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동료애와 진실한 유대감이 있는 더 광대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 그레고리 보일

실천 한 가지

난민에 대한 관심으로 작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사순 제1주간
화요일

03
12

이사 55,10-11 / 마태 6,7-15.

말씀 길라잡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하게 되는 '주님의 기도'를 오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알려 주시며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늘 "어떻게? 왜?"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독서 말씀이 도움을 줍니다. 하늘의 비가 내려 온 세상을 적시고 열매를 맺도록 해 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은총 그리고 위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내려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린 마음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 보여 주셨던 용서를 우리도 실천하고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흉내 내고 닮아 보는 것이 어떨까요?

스며듦

독버섯이 되지 않는 법

식용 버섯과 독버섯은 단 1퍼센트의 성분 차이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1퍼센트를 차지하는 미네랄의 특성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합니다. 버섯 이야기를 읽다 보니 때론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싸늘하기 그지없는 눈길로 모욕감을 주는 폭력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렇게 독버섯처럼 변하는 우리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우리를 독버섯으로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독버섯이 되는 데는 그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퍼센트의 편견이나 오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99퍼센트여도 충분하지 않지만 미움은 단 1퍼센트만으로도 완벽하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보다 미워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이충무,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

새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싫어할 때, 미움에 깊이 사로잡혀 있을 때,
잠시 동안 나의 정체성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 피에르 볼프

실천 한 가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자신을 위해 미사 1대를 봉헌합니다.

사순 제1주간
수요일

03
13

말씀
길라잡이

요나 3,1-10 / 루카 11,29-32.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루카 11,32)

오늘 요나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니네베로 가서 단 한마디를 외칩니다. “니네베는 무너진다!”(요나 3,4) 얼핏 보기에도 성의 없어 보이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의 표징은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회개의 삶을 실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예언자가 성의 없다, 말씀이 부족하다 탓하지 않고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지 공소를 방문하다 보면 신자들의 믿음과 열성에 늘 감탄하게 됩니다. 교리서도 신앙 교육도 심지어는 성전 건물도 없는 곳에서 신자들은 신앙을 키워 갑니다. 옆 마을에 사제가 와서 미사가 있다고 하면 왕복 몇 십 킬로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옵니다. 사제의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이들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진리는 가난하고 단순한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더욱 가깝고, 하느님과 가까이 산다는 것은 재료가 아니라 열려 있는 마음임을 말이지요.

스며듦

겸손

겸손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지녀야 할 미덕이나 반드시 쟁취해야 할 야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겸손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로 소박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겸손을 잃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 아돌포 케사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새김

‘겸손’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말한다.

+ 안셀름 그륀

실천 한 가지

환경미화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사순 제1주간
목요일

03
14

에스 4,17⑫.17⑭-17⑯.17㉓-17㉕ / 마태 7,7-12.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마태 7,11)

말씀 길라잡이

선교사로 활동한 햇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참 특별한 체험을 하곤 합니다. 오지 공소를 방문하고 나서 그곳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곳에 학교를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면 곧 연락이 옵니다. 좋은 지향을 지닌 이가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기부하고 싶다고요.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더러운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그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우물 파기'에 써 달라며 기부하는 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주시니 가끔은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간절히 청할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기와 때를 얼마나 잘 맞추시는지요.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지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때론 당혹스러울 만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사업에 더욱 진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스며듦

풍성한 응답

몇 년 전 나는 시골의 한 작은 읍내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따금 큰 상점에 우편 주문을 했는데, 가끔 인쇄한 신청서가 날아왔다. 그 주문 신청서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귀하께서 주문한 물품이 저희 상점에 없을 경우 비슷한 물품을 대신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은 이 난에다 '예.'라고 적어 보냈더니 그 상점은 내가 주문한 물품보다 가격이 두 배나 비싼 것을 보내왔다. 이 특이한 상점은 주문한 물품이 없으면 그보다 훨씬 질 좋은 물품을 대신 보낸다는 원칙을 정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뒤 주문 신청서를 보낼 때마다 그 난에다 그들이 똑똑히 알아보도록 대문자로 '예.'라고 적어 보내곤 했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도 그분이 다른 것을 대신 보내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면 언제나 우리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보내 주시기 때문이다.

+ 브루노 하그스피엘, 『느낌이 있는 이야기』

새김

하느님의 뜻은 작은 것보다는 큰 그림 속에 있다.

+ 리처드 레너드

실천 한 가지

저녁에 일찍 퇴근하여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순 제1주간
금요일

03
15

에제 18,21-28 / 마태 5,20ㄴ-26.

말씀 길라잡이

어느 유명한 소설가가 자신이 교정 사목 특히 사형수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바로 오늘 독서 말씀을 듣고 사형수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에제 18,23)

또한, 복음 말씀에서는 우리 가까이 살아가는 '형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여라."(마태 5,24)하는 말씀은 '공감'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 형제 또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범위 안에서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감의 마음이겠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대로 '공감'하고자 이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닮아 가길 소망해 봅니다.

스며듦

열 가지 침묵

침묵에는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다.
신중한 침묵이 있고, 교활한 침묵이 있다.
아부형 침묵이 있고, 조롱형 침묵이 있다.
감각적인 침묵이 있고, 아둔한 침묵이 있다.
동조의 침묵이 있고, 무시의 침묵이 있다.
정치적 침묵이 있고,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침묵이 있다.

+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 『침묵의 기술』

새김

침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솔함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어떤 생각들을 표출하지 않을지언정 그 무엇도 가장해서는 안 된다.

+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

실천 한 가지

거짓 뉴스를 조장하고 남발하는 이들의 회개를 위해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순 제1주간
토요일

03
16

신명 26,16-19 / 마태 5,43-48.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말씀
길라잡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큰 요구를 하시는 듯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그분과 관계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삶, 그분께서 실제로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과 상관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초대하십니다. 삶으로 그분께서 걸으신 길을 증언하며 우리 또한 주님 동행자의 무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며듦

돼지와 암소 이야기

부자가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인색하다고 날 좋아하지 않는다네. 그러나 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증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네."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그렇다면 암소와 돼지 이야기가 자네한테 교훈이 될 수도 있겠군 그래. 돼지가 암소를 찾아가 불평을 늘어놓았다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네를 정 많은 친구라고 떠들어 대지.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냐. 자넨 사람들에게 우유를 제공하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나에게서 얻어가는 건 그에 비하면 많아도 한참 더 많다네. 훈제한 허벅지 고기, 뱃살 고기, 정제한 돼지기름은 물론 심지어 족발까지 한두 가지인가. 그런데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들에게 나는 한낱 돼지요 욕심꾸러기일 뿐이야.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암소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네. '그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나를 내어 주기 때문이야.'"

+ 윌리 호프수에머, 『느낌이 있는 이야기』

새김

마음이 후하다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주는 것이다.

+ 라 브뤼에르

실천 한 가지

재능 기부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순 제2주일 창세 15,5-12.17-18 / 필리 3,17—4,1 또는 3,20—4,1 / 루카 9,28ㄴ-36.

03
17

말씀 길라잡이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영광'으로 이해됩니다. 제1독서 말씀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창세 15,5 참조). 제2독서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필리 3,2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본향을 알려 준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복음 말씀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접하게 됩니다. 거룩한 영광으로 들어 올려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된 약속, 하늘의 시민이라는 아름다운 이름표, 거룩한 변모, 이 영광들 안에 늘 머물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에서 곧장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곧장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없다면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시련, 바오로 사도의 고통과 죽을 고비가 바탕이 된 하늘의 영복을 오늘 이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스며듦

고통의 의미 발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의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 고통은 예수님 수난처럼 목적이 있다. 곧 이 시대의 환난을 통해 부활에 이르고, 공허를 통해 충만함에 이르고, 하느님 부재를 통해 무한하신 하느님 현존에 이르는 것이다. 자신이 받는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짊어질 수 있고, 고통을 통해서 똑바로 걸을 수 있다. 고통이 자신을 정화한다고 믿을 때 고통의 여정에서 더욱더 하느님께 마음을 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느님과 참된 생명을 활짝 보여 준다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 안셀름 그륀, 『내면의 샘』

새김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 빅터 프랭클

실천 한 가지 '교황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사순 제2주간
월요일

03
18

다니 9,4ㄴ-10 / 루카 6,36-38.

말씀 길라잡이

오늘 다니엘서를 바라보면 주님을 향한 참된 참회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참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자애와 사랑을 기억하며 참회합니다. 참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잘못만 나열하지 않고 내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한다면 참회거리는 자연스레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단죄하지 말고 "용서하여라."(루카 6,37)라고 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의외로 쉽게 우리에게서 용서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자애와 사랑을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며듦

고해성사의 출발점

많은 사람은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죄의 목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느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 주신 하느님의 사랑만이 우리 눈을 밝혀 주어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만이 죄를 밝게 드러내는 이유는 죄의 본질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도록 하고 그분께 대한 신뢰를 잃게 하며, 나아가 이웃과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결핍으로 드러나고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 한민택, 『내맡기는 용기』

새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
자신의 타고난 존엄성과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 리처드 로어

실천 한 가지

성당에 일찍 가서 하느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양심 성찰을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03
19

2사무 7,4-5ㄴ.12-14ㄱ.16 / 로마 4,13.16-18.22 /
마태 1,16.18-21.24ㄱ 또는 루카 2,41-51ㄱ.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마 4,18)

말씀
길라잡이

요셉 성인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고 올곧게 살았지만, 한순간에 하느님의 개입으로 일생이 뒤흔들리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따른 믿음의 성인입니다. 제2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하며 믿었기에 성가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본당에 프랑스 원로 신부님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50년 넘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살았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묵묵히 미사를 봉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대선배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희망은 보이거나 곧바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요셉 성인의 믿음과 순명을 본받아 ‘희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은총을 구합시다.

스며듦

은총의 역동성과 죄의 역동성

믿음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사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역동성은 은총의 열매이며 성령의 작품이다. 그러나 물론 우리 의지의 협조를 거친 것이다.

죄의 뿌리에는 의심, 하느님에 대한 의혹이 있으며 이러한 의심으로부터 불신이 태어나고 마침내는 불복종함으로써 죄에 빠지게 된다.

+ 자크 필립, 『내면의 자유』

새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반응하는 울림에 의해서이다.

+ 알벵 미셸

실천 한 가지

성 요셉 호칭 기도를 바칩니다.

사순 제2주간
수요일

03
20

말씀
길라잡이

예레 18,18-20 / 마태 20,17-28.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마태 20,26)

저에게 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한 신부님이 당신의 작은 체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오지를 방문하면 신자들이 모두 모이기에 식사를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아 큰 대접에 밥과 국을 담고 숟가락만 얹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제의 식사는 잘 마련된 장소에 제대로 준비합니다. 이 신부님은 잘 차려진 밥상을 거부하고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자들과 훨씬 가까워졌답니다. 신부님이 스스로 신자들과 같아지길 원하니, 신자들도 신부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권위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스승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더욱 편해집니다.

스며듦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셨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분이셨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한센병 환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전에 그 환자를 어루만지셨다. 예수님께서는 따돌림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벌이지 않으셨다. 자신이 따돌림당하는 분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수감자들을 위해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싸우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도 수감되었었다.”고 말씀했을 뿐이다. 예수님의 전략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돌림당하는 사람들과, 가장 자리로 밀려난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곳에 서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그레고리 보일, 『덜 소중한 삶은 없다』

새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밖에 서 있지 않고, 고통 속에서 우리와 동반하면서
고통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공유하신다.

+ 리처드 레너드

실천 한 가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사순 제2주간
목요일

03
21

말씀
길라잡이

예레 17,5-10 / 루카 16,19-31.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예레 17,8)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나무가 어디에 뿌리내리고 생명수를 어떻게 가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재물을 생명수라 생각하고 그것에 뿌리내렸습니다. 라자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속에 늘 하느님을 갈망하며 그곳에 뿌리내렸습니다.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한 신부님이 저에게 이런 엽서를 써 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이들이지만 하느님을 단순하고 기쁘게 따르는 이들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하길 바란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동행하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갈망은 너무나도 큽니다. 튼튼한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한 것처럼 참으로 단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어디로 뻗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뻗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며듦

마음의 우물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사막에 물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사막이 달빛을 받아 아름다웠지요. 그걸 본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물'을 마음속 깊이 지닐 때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이 우물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거룩한 장소' 곧 '성소(聖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마음 깊은 곳에 성소를 지니고 한 해 한 해 소중하게 키워 나가야 합니다.

+ 와타나베 가즈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웃을 수 있어요』

새김

당신이 신만을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 레프 톨스토이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를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사순 제2주간
금요일

03
22

창세 37,3-4.12-13ㄷ.17ㄹ-28 / 마태 21,33-43.45-46.

말씀 길라잡이

마다가스카르는 아직도 원시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한 예로 성별이 다른 쌍둥이는 불경하다고 해서 한 아이를 죽이는 악습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교구의 한 신부님도 성별이 다른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본디 죽을 목숨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의 할머니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에 신부님을 데리고 가서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손수 키웠습니다. 이후 사제가 된 신부님은 이러한 악습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이 행하는 악습이 한 명의 사제를 죽일 수도 있다며 신부님은 가는 곳마다 증언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듯 보이는 이 신부님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악습에 저항하지 못한 부모를 불쌍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이야기와 자신이 믿었던 소작인들에게 배신당한 주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로 던져질 때 그는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소작인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알았을 때 주인은 마음이 얼마나 찢기듯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은 형제들을 구원하였고, 소작인에게 배신당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좌절과 증오를 뛰어넘는 사랑은 하느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스며듦

부드러움

우리는 선함이나 부드러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한 자의 미덕이 아니라 영적 강함의 표식이자 배려의 능력, 연민의 능력, 타인에 대한 진정한 개방성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 로사리오 카렐로, 『안녕하세요, 교황입니다』

새김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 데이비드 그리피스

실천 한 가지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사순 제2주간
토요일

03
23

미카 7,14-15.18-20 / 루카 15,1-3.11ㄴ-32.

말씀 길라잡이

어렸을 적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실 텐데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도록 내버려 두실까?'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복음 말씀이 온전히 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는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아들이 타지에서 재산을 탕진해 가며 방탕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도 아버지는 지켜봅니다. 아들이 비참하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한걸음에 뛰어나갔다고 전합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매불망 아들이 떠난 길만 바라보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 안에서 부르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아프더라도 존중해 주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일부러 먼 길을 애써 돌아가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녀일까요?

스며듦

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눈을 감는 행동입니다. 자신에게 달라붙은 잘못이라는 더러움을 희생양에게 덮어씌우고, 자신은 더러움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결코 더러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의 잘못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자신 안에도 비슷한 경향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약함을 인정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는 겸손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 안셀름 그륀,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

새김

분노에 더딘 이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성을 정복한 자보다 낫다.

+ 잠언 16,32

실천 한 가지

화가 날 때마다 연옥 영혼을 위해 화살 기도를 바칩니다.

사순 제3주일 탈출 3,1-8ㄱㄷ.13-15 / 1코린 10,1-6.10-12 / 루카 13,1-9.

03
24

말씀 길라잡이

우리는 벌써 사순 제3주일을 맞이합니다. 참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기억도 잊혀 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억'입니다. 조상 대대로 공경하던 하느님과 탈출기의 위대한 구원과 여정을 기억하며 주인이 종들에게 베풀었던 은총과 자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에서 종들이 포도밭에서 주인과 함께 일구었던 아름다운 시간을 기억했다면, 자신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주인의 신뢰를 기억했다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약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으려면 반복해서 기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미사를 드리며 성체성사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지요. 사순 시기의 중간에 접어든 우리는 처음에 품었던 결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영적 옷깃을 다시금 추슬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며듦

저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어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평화에 대한 강연을 하러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통역을 담당한 제가 옆에서 바라본 수녀님은 늘 생글거리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기사들이 "수녀님, 이쪽을 봐 주세요."하고 외치면 그들을 향해 꼭 웃는 수녀님의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녀님, 여기요."하고 말하면, 수녀님은 소리가 난 쪽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정이 끝난 뒤 어둡고 추운 밤길을 수녀님과 나란히 걷는데 "수녀님."하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어요. 제가 웃을 때마다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과 약속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싫은 표정 짓지 않고, 귀찮은 얼굴 하지 않을 테니 제가 웃을 때마다 영혼을 당신 품으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말이지요."

+ 와타나베 가즈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웃을 수 있어요』

새김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어라.

+ 유대인 속담

실천 한 가지

평일 미사를 참례합니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03
25

이사 7,10-14; 8,10ㄷ / 히브 10,4-10 / 루카 1,26-38.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루카 1,35)

말씀 길라잡이

몇 년 전 아프리카 선교사 모임을 갔습니다. 모임에서 선교사들의 너무나도 다양하고 기구한 삶을 들으며 과연 어떤 힘이 이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는지 놀랍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느님의 힘이, 성령의 이끄심이 적극적으로 있었기에 가능했던 “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라는 이 한마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고통이 우리 앞에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저 오늘도 “예.”라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스며듦

본디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제품을 받고 첫 부임지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내게 서품 선물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풀어 보라 하셨다. 그러나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선물 보따리를 풀어 본 나는 어머니의 깊고 깊은 사랑에 목이 메어 한참을 울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장롱 속에 차곡차곡 보관해 둔 내 갓난아이 적 배냇저고리와 한두 살 무렵 입던 작은 옷가지들이 편지와 함께 개여 있었다. 학교에서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어머니가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막내 신부님, 신부님은 본디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지치고 힘이 빠질 때, 영적 교만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 보며 새로운 힘을 얻는다.

+ 이춘선, 『네 신부님의 어머니』

새김

우리는 하느님 다음으로 어머니에게 빚진 자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어머니는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 보비

실천 한 가지

성모 호칭 기도를 바칩니다.

사순 제3주간
화요일

03
26

다니 3,25.34-43 / 마태 18,21-35.

말씀 길라잡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기 힘든 존재인가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인에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이 지은 빚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액수의 금액을 빚진 동료를 무지막지하게 대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총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는 부족한 언어 때문에 늘 제 기도의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말이 통하니 그 기도가 쏙 들어갔습니다. 의사소통이 처음에 바라던 수준에 도달했으나 감사할 줄 모르고 더 큰 것만 요구하며 늘 욕구 불만에 빠져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다면 고민과 어려움이 의외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며듦

감사 훈련

감사는 '삶으로 실현해 내야 할 훈련'입니다. 감사를 훈련한다는 것은, 존재와 소유 전체를 사랑의 선사품이자 기쁨으로 누릴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사의 길로 들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른길을 고르면 다음 선택은 좀 더 쉽고, 더 자유로우며, 덜 겸연쩍습니다. 한 가지 선물에 눈을 뜰 때마다 다음 선물을 인식하게 되고 또 다음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가장 일상적이며, 뻔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나 만남조차도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기에 이릅니다.

+ 헨리 나우웬, 『탕자의 귀향』

새김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 에이미 밴더빌트

실천 한 가지

새 영세자를 위한 교리반에 예비자 1명을 인도합니다.

사순 제3주간
수요일

03
27

신명 4,1.5-9 / 마태 5,17-19.

말씀 길라잡이

오지의 공소를 방문하면 신자들 덕분에 신명이 납니다. 1년에 2번 맞이하기도 힘든 사제가 마을에 도착하면 신자들은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신부가 머무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제가 들려주는 교리를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합니다. 외국인 신부가 유창하게 말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하느님의 말씀이 좋을 뿐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선배 신부님은 "공소의 신자들만큼 사제가 들려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사람들만 있으면 하느님 나라는 금방 이루어질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 말씀이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 봅니다. 그러기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서 말이지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태 5,3)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가난한 마음에 생명수 같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다시금 가져 볼 수 있는 은총을 오늘 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며듦

광야

삶, 영성의 진정한 출발은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까지 우리를 방해했던 수많은 인생의 먼지로부터 해방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만이 우리 자신의 영과 그분의 영이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은 그곳에서 40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온전히 맛보고 느낄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한 세대, 인간이 지상에서 머물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뜻합니다. 한 인간의 시작과 끝, 탄생, 성장, 그 안에서의 유혹과 번민, 인생의 사계절, 희로애락, 깨달음과 재탄생,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광야라는 장소와 '40'이라는 시간적 의미는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진정한 내 자신과 마주하는 시공의 의미가 있는 곳이자, '회개'를 넘어서 '회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ssp, 『성당지기 이야기』

새김

광야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지성소이다.

실천 한 가지 SNS를 이용할 때 긍정적이고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순 제3주간
목요일

03
28

예레 7,23-28 / 루카 11,14-23.

말씀 길라잡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에게 시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힘으로 행하신 좋은 일들을 악마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어떤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가져오는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오지의 공소에 우물을 하나 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더러운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착한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우물을 팠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정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더러운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 단체에서 우물을 팠기에 자신들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전한 사랑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둬 놓고 멀리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상을 뛰어넘어 그 뒤에 실제로 일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보다 넓은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스며듦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 드리는 올바른 자세는 자신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조용하고 '편안한' 수용의 자세, 거룩함에 대한 커다란 염원, 하느님 은총의 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아지려는 강한 결심이다.

+ 자크 필립, 『내면의 자유』

새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유장근

실천 한 가지

내가 가진 물품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자선 단체에 기부합니다.

사순 제3주간
금요일

03
29

호세 14,2-10 / 마르 12,28ㄱㄷ-34.

말씀 길라잡이

사실 모든 선교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강론하고 신자들과 대화하면 너무나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 실력도 되지 않는 언어로 신자들에게 강론과 교리를 가르쳐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내가 언어가 부족한 것일까? 주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답은 후자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에 감탄하고 그것을 신자들과 나눌 때는 부족한 언어 실력에도 진심이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작지만 참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안에 언어 실력에 대한 탓만 있다면,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으로 묵상한 성령의 언어라면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고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 마음을 살펴봅니다, 무엇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스며듦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의 차이

자기 긍정이란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하고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칫 우월 콤플렉스에 빠질 수 있다. 한편 자기 수용이란 '하지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60점짜리 자신에게 "이번에는 운이 나빴던 것뿐이야. 진정한 나는 100점짜리야."라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자기 긍정이다. 반면에 60점짜리 자신을 그대로 60점으로 받아들이고, "100점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방법을 찾는 것이 자기 수용이다.

+ 기시미 이치로 · 고가 후미타케, 『미움받을 용기 1』

새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사물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다.

+ 유진 케네디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봉헌합니다.

사순 제3주간
토요일

03
30

호세 6,1-6 / 루카 18,9-14.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호세 6,3)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바리사이가 하느님께 대한 도리를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느님의 마음에 든 것은 세리가 드린 참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흔히 외적인 것으로 주님께 향한 예를 다했다고 쉽게 착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이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동반하는 것은 많은 인내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신자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는 선교 사제의 모습은 건물을 많이 지은 사제가 아니라 오지에 있는 신자들을 자주 방문하고 기도와 교리를 가르쳐 준 사제를 오래 기억하고 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닌 하느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는 따스한 손길 말입니다.

스며듦

행복해도 되는 식당

비록 잠시지만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오는가 하면, 라면을 시켰는데 돈가스가 나오는 이상한 식당입니다. 일본 도쿄시 도요스에 있는 이 식당의 이름은 황당하게도 '주문 실수 넘치는 식당'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섯 명의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방금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기억하지 못하여 엉뚱한 음식을 가져다주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서는 어떤 손님도 주문한 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하고도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며 할머니들과 즐겁게 소통합니다.

이 식당을 기획한 오구니 시로는 치매 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도 포용하지 못하고 다시는 서로 안 볼 것처럼 멱살부터 잡는 살벌한 요즘, 우리 동네에도 '주문 실수 넘치는 식당' 같은 것이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 이충무,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

새김

물의 단위는 리터, 무게의 단위는 그램, 그리고 기쁨과 슬픔의 단위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증거다.

+ 김은주

실천 한 가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한 끼 단식합니다.

사순 제4주일 여호 5,9ㄱㄴ.10-12 / 2코린 5,17-21 / 루카 15,1-3.11ㄴ-32.

03
31

말씀
길라잡이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오늘 말씀 안에서 작은아들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궁핍에, 외로움에 작은아들은 아버지께로 갈 결심을 합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루카 15,20). 모든 상황을 바꿔 놓는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가니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2독서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얼핏 들으면 하느님과 싸우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등을 돌린 것은 사실 늘 우리였습니다. 하느님과의 화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만 주님께로 돌리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분을 향한 발걸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 주실 것입니다.

스며듦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용서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분께서는 늘 우리를 걱정스레 바라보시며 우리를 찾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목표가 없습니다. 하느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여정은 그저 '방황'일 뿐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아직도 뒷담화 하시나요?』

새김

용서는 우리의 약함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창조 능력이다.

+ 티모시 래드클리프

실천 한 가지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의 선순환을 돕습니다.

사순 제4주간
월요일

04
01

이사 65,17-21 / 요한 4,43-54.

말씀 길라잡이

주님께서 표징을 일으키신 곳을 주목해 봅니다. 바로 갈릴래아 카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카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인 혼인 잔치의 기적을 보여 주셨던 곳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왕실 관리의 간곡한 부탁으로 죽음에 처한 그의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혼인 잔치를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말 한마디라면 죽음의 세력도 범접하지 못하리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카나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 끝, 이 모든 것에 함께 계시며 손수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자녀들이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카나의 기적에서 또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스며듦

인생을 기쁘게 사는 법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자기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바리사이라고, 보기 싫다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고 자기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는 것은 기쁨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밀어내는 마음에는 더한 불행만 쌓일 뿐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천국은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 이제민, 『손 내미는 사랑』

새김

지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 백범 김구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선물합니다.

사순 제4주간
화요일

04
02

에제 47,1-9.12 / 요한 5,1-16.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에제 47,9)

말씀
길라잡이

아프리카 선교사 모임에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 펌프로 척박한 땅을 일궈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이야기, 우물 몇 군데를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아 결국 우물을 시추하는 업체가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이야기 등 ‘물’에 대한 일화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선교사들에게 ‘물’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른여덟 해를 앓는 사람에게 벳자타 못은 생명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절실함으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명의 샘이신 그분을 알아보고 찾으려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늘의 병자처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며듦

솔직히 고백할 게 있는데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생겼어!

신앙 활동에 열심인 아내와 달리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늘 아내를 하느님께 빼앗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 평생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성당을 찾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성당 감실 앞에서 “내 마누라 돌리도.”하며 엉엉 울었다. 며칠을 고통의 안개 속을 헤매다 아내와 자신의 신앙생활의 차이를 살펴보며 모든 면에서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셔두는 아내와 하느님을 항상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놓는 자신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아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성당에 가서 평일 미사 참례를 하며 성체를 모시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꼭 안아 주시는 것 같으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리고 성당 문을 나설 때는 마치 하늘을 날 듯 기뻤다. 이후 남편은 더욱더 예수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고백할 게 있는데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생겼어!”

+ 배카타리나 · 손엘디, 『동반 부부』

새김

사랑에 빠져라.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 페드로 아루페

실천 한 가지

재소자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을 후원합니다.

사순 제4주간
수요일

04
03

이사 49,8-15 / 요한 5,17-30.

말씀 길라잡이

말씀하시는 주님과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큰 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 안으로 전혀 스며들지 않고 튕겨져 나갑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주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참하느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돌같이 굳은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요한 5,30). 주님께서도 마음이 돌처럼 굳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뜻만 전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인내가 느껴집니다. 저는 과연 오늘 얼마나 많은 이들을 심판하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의 잣대에서 벗어난 그들을 얼마나 단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것, 오늘 주님을 통해 다시금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스며듦

수용적인 사람

수용적인 사람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이 줄 수 없거나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덕적 규범에 반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든지 절제한다. 수용적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에게서 발견한 기쁨을 표현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큼만 한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높은 수준인 절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곧 수용하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사랑으로 집을 짓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 콘래드 W. 바스, 『수용의 기적 두 번째 탄생』

새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잘 조율된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 김선희

실천 한 가지

성당 전례 봉사를 1회 합니다.

사순 제4주간
목요일

04
04

탈출 32,7-14 / 요한 5,31-47.

말씀
길라잡이

"너희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요한 5,38.40).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를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소홀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이심을 알면서도 그분께 나아가 생명의 수액을 받아 마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공소를 방문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200가구 정도가 사는 황량한 그곳에 물이 너무나 풍부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계곡을 따라 길게 심어진 나무에서 시작된 물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골짜기의 나무들이 생명수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머무르지 못하면 그분께 뿌리내리지 못하면 나 또한 생명수를 내어 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짧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생명이신 그분께 더 늦지 않게 달려가는 마음, 발걸음, 오늘부터 옮겨 보아야겠습니다.

스며듦

지금 여기

하잘것없는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을 신뢰하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라. 때때로 우리는 치유되지 않은 과거나 알 수 없는 미래에 살지만, 하느님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코앞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선한 영은 평범한 삶을 그대로 살라고 우리를 끌어당긴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식별한다.

+ 리처드 레너드, 『도대체 하느님은』

새김

현재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라.
'지금'이 근본이 되고 중요한 구심점이 될 때 삶은 여유롭게 풀리기 시작한다.

+ 에크하르트 톨레

실천 한 가지

'성소를 위한 기도'를 1회 바칩니다.

사순 제4주간
금요일

04
05

지혜 2,1ㄱ.12-22 / 요한 7,1-2.10.25-30.

말씀 길라잡이

마다가스카르의 한 본당 주임 신부의 첫 부임 미사 이야기입니다. 교구장 주교님이 새 주임 신부의 부임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미사 마지막에 총회장이 주교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본당에 발령받은 주임 신부는 우리 지역 출신 신부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전통과 명예를 존중하는 우리 지역 신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특히 노예 계급에서 온 새로운 주임 신부에게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친 발언에 주교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임 신부가 주교님을 안심시키며 한마디 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출신 지역은 예로부터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게 될 이 지역의 민족에게 늘 봉사했던 계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제대로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봉사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받들어 섬기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현명한 말씀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고, 새로운 주임 신부는 주어진 임기를 다 마치고 다음 부임지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출신 지역을 따지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들의 닫힌 눈과 마음을 열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을 겁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봉사하러 오신 주님,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바라보고 닮아 가는 하루이길 기도해 봅니다.

스며듦

자신만큼 보이는 세상

세상은 자신만큼 보입니다. 아픈 만큼 보이고, 사랑한 만큼 보입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상처에 매몰된 만큼 세상을 보고, 행복한 사람은 그가 소유한 행복의 눈으로, 사랑을 가득 품은 사람은 그만큼의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살아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만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삶은 영성을 기초로 하고, 영성은 삶을 만들어 냅니다.

+ ssp, 『성당지기 이야기』

새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나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지는 것'이다.

실천 한 가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니다.

사순 제4주간
토요일

04
06

예레 11,18-20 / 요한 7,40-53.

말씀 길라잡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참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과 그와 반대로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여부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분과 마음으로 대화했던 이들은 참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만남'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목하고 있는 본당은 '성가정 본당'입니다. 관할 공소만 41개입니다. 신부 세 명이 1년에 한 공소를 두 번 방문하기도 바쁘지만, 최선을 다해 신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만남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는 모든 시간이 단순한 만남이 아닌 주님을 알아 가는 진솔한 만남이길, 그러한 만남을 꾸려 나가길 기도합니다.

스며듦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는 비록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다. 하느님 체험은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올 수 있고,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미소 짓는 모습을 통해 올 수 있으며, 활동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노숙자 쉼터에서 가난한 사람들 틈에서 일할 때, 그리고 자성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성경 묵상을 할 때 올 수 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다.

+ 제임스 마틴, 『예수, 여기에 그가 있었다 1』

새김

지금 이 순간과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이
하느님과의 합일로 가는 가장 분명한 길이다.

+ 리처드 로어

실천 한 가지

힘들고 짜증 날 때마다 주모경을 바칩니다.

사순 제5주일 이사 43,16-21 / 필리 3,8-14 / 요한 8,1-11.

04
07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이사 43,19)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주님을 곤란하게 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이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면을 돌아보도록 너희 자신은 얼마나 깨끗한지 살펴보라 하십니다. 그 사나운 눈길을 자신에게 돌린다면 떳떳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오늘 주님께서 생생히 알려 주십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이사 43,18-19).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초대하십니다. 다 털고 일어나자고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등 뒤로 내던져 버리시는 분(이사 38,17 참조)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은총을 생각하며 늘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응답으로 말입니다.

스며듦

영혼에 활력을 주는 9가지 방법

1. 나이 듦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라.
2. 어디에서나 사랑을 찾아라.
3. 함께함을 기뻐하라.
4. 현재에 살아라.
5.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6. 용서하라.
7. 아낌없이 베풀어라.
8.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
9.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마라.

새김

과거를 놓아준 만큼 미래가 열린다.
습관과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별을 고하라.

+ 안셀름 그륀

실천 한 가지 지역의 도보 성지 순례길을 걷습니다.

사순 제5주간
월요일

04
08

다니 13,1-9.15-17.19-30.33-62 또는 13,41ㄹ-62 / 요한 8,12-20.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

말씀 길라잡이

주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빛을 전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사는 신부님과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공소 신자 한 명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이 공소를 방문하고자 논둑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한 여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여인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 주었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새 신자 입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신의 입교 동기를 발표하는 시간에 여인은 길을 비켜 준 외국인 신부님 때문에 자신이 입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 신 또한 선하고 참된 신일 것 같아서 자신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던 신부님의 행동이 하느님의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것에서 시작됨을 느낍니다.

스며듦

줄줄이 이어지는 고마움

‘고맙다’는 말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된다. ‘고맙다’는 말은 곧바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마움의 인사는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유달리 감동을 주는 고마움은 윗사람이 표현하는 고마움이다.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부모, 종업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장, 학생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선생님의 경우가 그렇다. 낯선 이들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가까운 이들에게는 왜 못하는 것일까?

+ 프랭크 미할릭, 『느낌이 있는 이야기』

새김

감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결실이다.

+ 메난드로스

실천 한 가지

만민 선교를 위해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1회 바칩니다.

사순 제5주간
화요일

04
09

민수 21,4-9 / 요한 8,21-30.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요한 8,26)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와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제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욕구 안에서 늘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만을 생각하셨던 주님의 고뇌를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말씀에 머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제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을 펼치고자 오늘도 먼저 그분 안에 머무르는 여유를 청하고 찾아봅니다.

스며듦

행여 떨궈 놓고 가실까 봐

하느님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나이다.
나는 당신께로부터 나왔고,
당신이 보내시는 얼(기운)을 받아 숨을 쉬고 있사옵고,
당신의 영원이 저를 안아 가시는 날엔
내 숨이 당신 안에 잦아들기 때문이외다.
나는 당신을 위해 창조되었고, 당신이 아니시면
내 생명의 희망도 내 존재의 가치도 없나이다.
내 삶의 목표도 당신 향해서만 뚜렷하오니
전들 어찌하오리이까?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옵고,
억겁의 옛날부터 하느님의 뜻일 뿐이외다.
그러하오니 나는 죽어도 살아도 당신의 딸이오니
저는 아버지께서 어디로 가라시든지 따라다닐 판이옵고,
결코 당신을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며,
행여 떨궈 놓고 가실까 봐 당신 발목 붙들고 잠드나이다.

+ 이춘선, 『네 신부님의 어머니』

새김

당신은 가장 숭고한 이유로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성체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 라니에로 칸탈라메사

실천 한 가지

환경 보호를 위해 세제 사용을 자제합니다.

사순 제5주간
수요일

04
10

다니 3,14-20.91-92.95 / 요한 8,31-42.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요한 8,37)

말씀
길라잡이

우리 자신 안에 주님을 맞아들일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자리를 알려주는 것이 선교의 가장 큰 목적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부, 수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조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참 아름다운 협조자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을 가진 교리 교사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큰 자리를 알고 나서 다른 이에게도 정말 열심히 전교했습니다. 그의 방문을 통해 23곳이 넘는 공소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모임이 있으면 4백 명이 넘는 신자들이 모입니다. 이들의 성당은 참으로 소박하기 그지없지만, 하느님을 중심에 모셔 두는 그들의 신앙심은 어느 화려한 성당의 신자들보다 뜨겁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미사를 봉헌하지만, 자신들의 한가운데에 아름답게 주님을 모시고 마음 한가득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을 만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을 통해 제 스스로가 본향을 찾아갑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습니다.

스며듦

소통의 의미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 피에르 볼프, 『하느님을 미워해도 될까요?』

새김

소통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것이다.

+ 양광모

실천 한 가지

새터민의 자립을 돕고자 이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합니다.

사순 제5주간
목요일

04
11

창세 17,3-9 / 요한 8,51-59.

말씀 길라잡이

예수님께서 유다인과 하는 대화 내용을 그려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과격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부드럽게 돌려 이야기하면 안 되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아는 지식은 흐리멍덩하게 돌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세례나 첫영성체를 받으려면 3년을 꼬박 공부해야 합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또 3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너무 엄격하고 가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 하느님을 알아 간 이들은 그만큼 교회를 쉽게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기간을 통해 배운 것이지요.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6달이라는 시간도 길다고 투정하는 신자들을 쉽게 만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변에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양보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해 알아 감'입니다. 바로 가장 첫자리에 놓아야 할 그것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며듦

숨은 친구를 찾지 않는 술래

바룩이란 랍비에게 제셀이라는 손자가 있었다. 어느 날 친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던 제셀은 친구가 자신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억울한 마음에 제셀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울음을 터트리며 하소연을 했다. 사정을 들은 할아버지 또한 눈물을 흘리며 손자에게 말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단다. '나는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하시면서 말이야". 이 이야기에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곧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며,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 마르틴 부버

새김

하느님께서 인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인간이 발견해서가 아니라 찾아 구했기 때문이다.

+ 키르케고르

실천 한 가지

병자 방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순 제5주간
금요일

04
12

예레 20,10-13 / 요한 10,31-42.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요한 10,38)

말씀 길라잡이

주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호소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으로 선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의지를 결과를 보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뜻하지 않게 많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학교, 우물 등 이 모든 것은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과 모래와 자갈을 가져오는 일 등은 모두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마을에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을 누구보다 반기며 주민들은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 안에는 개신교 신자도 토속 종교를 믿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열심히 도와서 일합니다.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바라봅니다. 종교를 떠나 참 좋으신 하느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말이지요. 그들이 이루어낸 그 일들을 보며 알게 됩니다.

스며듦

이상적 관상

이상적 관상은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찾고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은총의 활동을 더 깊이 느끼고 외부의 피조물들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법을 더 잘 이해하면 관상이 더 완전해집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새김

관상은 다른 쪽 실체를 볼 수 있도록 가슴과 머리 공간을 충분히 열어 두는 수련이다.

+ 리처드 로어

실천 한 가지

은인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사순 제5주간
토요일

04
13

말씀
길라잡이

에제 37,21ㄴ-28 / 요한 11,45-56.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에제 37,27)

에제키엘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해 주시고 우리의 하느님이 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당신을 최전선에 내세워 희생양으로 삼으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고 그분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갈 확신과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 사는 프랑스 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볼 때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 같다.”라고 말입니다. 저도 동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최전방이기에 부족한 것, 어려운 것, 위험한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전방이기에 사령관이신 주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시고 최전방에서 고전분투하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며듦

성장의 비밀

신앙에서 성장의 비밀은 위기와 그를 통한 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관계의 형성에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보여 주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놀랍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 위기와 시련은 변화와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내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 한민택,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새김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픔이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

실천 한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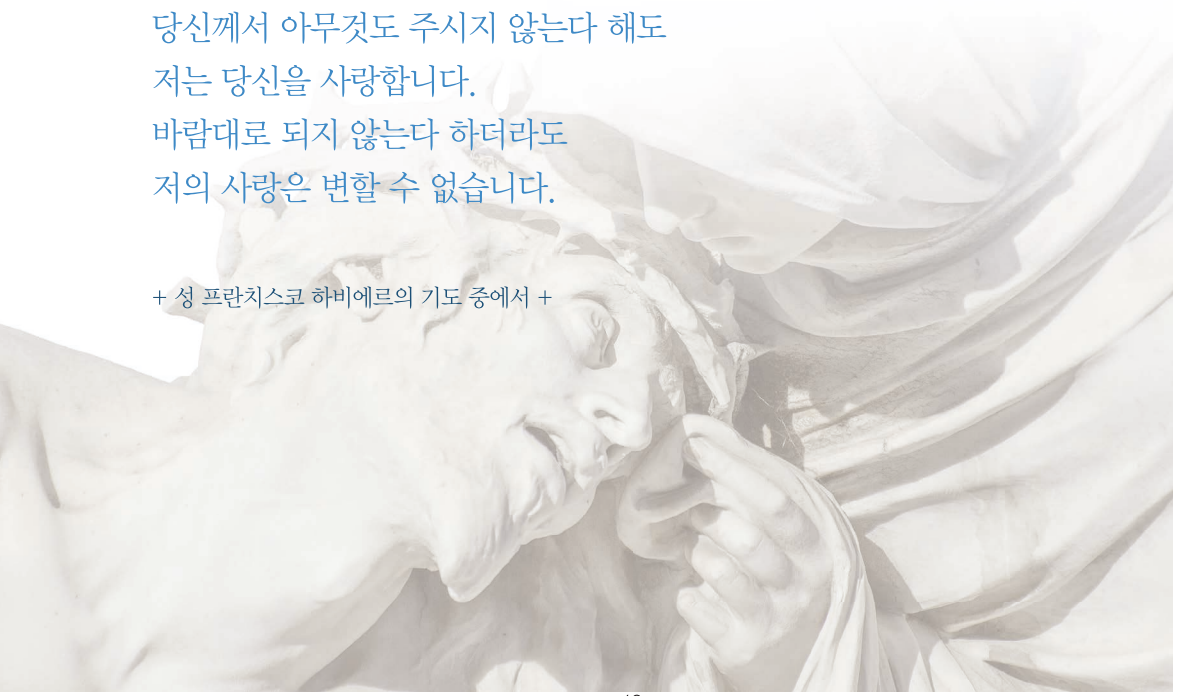
이주민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께서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께 등을 돌리지 않은 것은
지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매료시키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제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을 받으셨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제 영혼을 이끌리게 하는 것은
당신께서 받으셨던 수치와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저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의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기도 중에서 +



4천 년의 기도, 단식

우리는 해마다 사순 시기가 되면 사순 시기 고행의 하나로 으레 단식을 한다. 단식은 4천 년이나 계속되어 온 유서 깊은 기도이다. 고대에는 주로 건강과 축복을 위해 단식을 하였으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스도교에 의해 그 의미와 가치가 점차 심화되었고 4~5세기 교부들에 의해 성찰된 단식의 의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 구약 시대의 단식

구약 성경에서 단식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을 지닌다. 그들에게는 정기적인 단식과 비정기적인 단식, 공동 단식과 개인 단식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주간 단식을 했다. 이 단식은 일반 단식에 해당한다. 미드라쉬에 따르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두 차례 주간 단식은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단식이었다. 또한 율법서에는 주변 상황에 따라 임시 단식과 개별 단식에 관해 다양한 상황들을 규정했다. 모세와 다니엘과 엘리야가 했던 단식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전형적인 단식이다. 끝으로 모세의 율법서는 한 해에 한 번, 공동 단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속죄일을 정해 놓았다. 속죄일은 온전히 휴식하며 참회하는 축일이었다.



2. 신약 시대의 단식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예언적인 가르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에 대해 자세한 교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활 동안 구약 성경의 전통과 규율을 준수하셨다. 단식에 대해서도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셨고 동시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시며 당신 스스로 그 본보기를 행동으로 보여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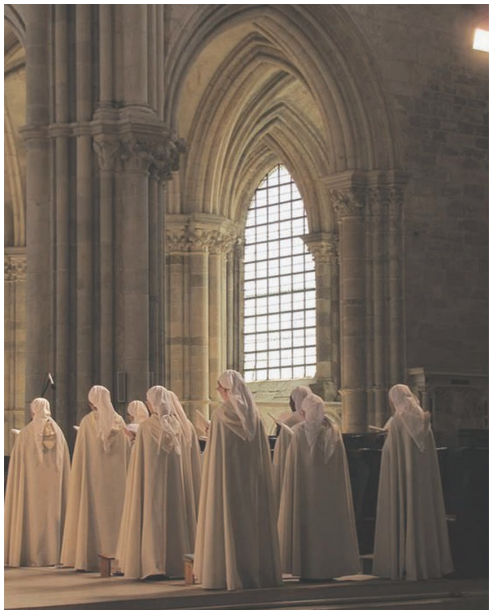
예수님의 단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첫 번째는 용서의 기다림과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 대한 합당한 표현을 드러낸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을 신랑에 빗대어 정의하시면서 당신의 예언 말씀을 통해 단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다. 단식은 결단코 형식적인 명령이 아니다. 단식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데 적합한 행동이고, 하느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리는 시간에 필요한 행위이다.

3. 초대 교회의 단식

초대 교회의 단식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대 교회의 고유한 단식 관습은 복음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곧 유대교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을 주간 단식일로 정한 것과 달리 초대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을 주간 단식일로 정하여 수난의 두 순간, 곧 유다의 배반이 있었던 수요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단식 기간에 절약했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자선 행위를 단식과 기도에 연결시켰다.

4. 3~4세기 교회의 단식

3세기는 그리스도교에서 단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나타나는 시기다. 이때의 단식은 권고의 형태로 제시되었



다가 세례의 전례적·성사적인 배경을 통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또한 성찬례 이전 단식인 '성찬 단식'과 사순 시기 단식인 '파스카 이전 단식'을 위한 규정들이 강화되었고, 4세기에 이르러 사순 시기와 그에 따른 사순 단식이 공적으로 정착되었다.

5. 교부들의 단식

4세기와 5세기의 교부들은 하나인 교회 안에서 단식이라는 전통을 성서적·전례적·영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계속 그 전통을 확장시켜 나갔고 단식의 영성적인 면을 완성시켜 음식의 절제(단식)에서 악습의 절제(단식)로 심화시켰다. 또한 교부들은 사순 기간의 단식에 대해 언급하며 사순 시기에 실천할 영적 단식을 강조했다.

단식의 육체적 고행은 단식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육체적·정신적 균형 감각을 이룬 상태에서 하는 단식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따른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단식을 한다면, 우리 몸이 하느님 현존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단식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혹, 곧 의심과 나약함, 성급함, 장기간 단식하다가 굶어 죽겠다거나 음식을 먹으니 이제 살 것 같다는 유혹들과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단식을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양육되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단식은 자신의 경솔함을 다스리고 종교 행위에 마음을 열며 자신의 구원을 준비하는 중요한 행위다.

출처 **아델라 스카르네라, 『4천 년의 기도, 단식』, 노성기, 안봉환 옮김(서울:가톨릭출판사, 2018)**

주님 수난 성지 주일

04
14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 복음 루카 19,28-40.
이사 50,4-7 / 필리 2,6-11 / 루카 22,14-23,56 또는 23,1-49.

말씀 길라잡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성지 주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순례를 합니다. 도시에서 20km, 멀게는 60km까지 떨어진 공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모든 청년 신자들이 신앙 대회를 합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험한 길이기에 당연히 걸어가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900명이 넘는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머리에 3박 4일 동안 먹을 쌀을 짊어지고 하루나 이틀에 걸쳐 순례합니다. 걷는 내내 성가를 힘차게 부르는 아름다운 청년들의 음성이 귓가에 생생히 울려 퍼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옮기셨던 발걸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맞이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슬퍼하며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당히 발걸음을 옮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신 그분의 발걸음에 동참하며 거룩한 성주간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합시다.

스며듦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듯이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신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완전하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과 영혼, 지성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십시오. 당신이 하느님과 하나된 이후에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생겨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고리는 계속됩니다.

+ 아돌포 케사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새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

+ 안셀름 그륀

실천 한 가지 미사가 끝난 뒤 성당 자리 정리를 돕습니다.

성주간 월요일 이사 42,1-7 / 요한 12,1-11.

04
15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요한 12,7)

말씀 길라잡이

당신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발라 머리카락으로 닦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놔두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어색함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느님의 종은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성실하게 당신의 일을 해 나간다고 전합니다.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느님 안에서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이들은 참으로 큰 나무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우리들의 선교 현장, 바로 그곳에서 주님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으려면 하느님 안에 깊게 뿌리내리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습니다.

스며듦

물에서 배운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은 온갖 것을 위해 섬길 뿐,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낮은 데를 찾아가 사는 자세, 심연을 닮은 마음, 사람됨을 갖춘 사귐, 믿음직한 말, 정의로운 다스림, 힘을 다한 섬김, 때를 가린 움직임. 겨루는 일이 없으니 나무람 받을 일도 없습니다.

+ 노자, 『도덕경』

새김

가장 낮은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다를 이룰 수 있다.

+ 김제동

실천 한 가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1회 바칩니다.

성주간 화요일 이사 49,1-6 / 요한 13,21ㄴ-33.36-38.

04
16

말씀 길라잡이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요한 13,26)

예수님 사랑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속 생각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다에게 포도주를 적신 빵을 건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로 성찬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빵을 당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남겨 주신 것입니다.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몸과 피를 모두 그에게 손수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제자보다도 먼저 유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몸짓과 마음에 악마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찬례 안에서 어김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셨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무한한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스며듦

진정한 경배

경배는 감정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배는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극단의 고통스런 상황이나 메마른 감정 상태에서도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느님을 조건 없이 온전히 섬긴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동할 때만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로가 없을 때도 의지적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 송봉모, 『순례자 아브라함 1』

새김

기쁨과 행복 속에서만 하느님께서 자비하시다고 감사하는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고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실천 한 가지 가까운 독거노인을 방문합니다.

성주간 수요일 이사 50,4-9ㄴ / 마태 26,14-25.

04
17

말씀
길라잡이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마태 26,24)

예수님을 넘길 악의 세력이 가까이 왔습니다. 유다를 통해 그 세력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그 악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마태 26,24).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안위는 뒷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유다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흔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요한 13,1 참조). 바로 이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발걸음에 우리도 동참합시다.

스며듦

올바른 사랑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을 선택해야 하고, 또 인격적 가치를 간직해야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에게 불손하면서 강아지는 애지중지하는 것은 사랑이 방향을 잃은 것이요, 부모의 몸을 편안하게 봉양하지만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품격을 잃은 것이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랑은 마치 애완동물을 사랑하듯이 대상을 자신의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랑'이란 그 대상과 깊이에 따라 여러 층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았을 때 비로소 인간을 사랑하는 '인애(仁愛)'가 되고, 부모를 사랑하는 '친애(親愛)'로 깊어진다.

+ 금장태, 『나를 찾고 너를 만나』

새김

존경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은 성립되지 않는다.

+ 피히테

실천 한 가지 수난 감실 준비를 위한 봉사에 참여합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04
18

탈출 12,1-8.11-14 / 1코린 11,23-26 / 요한 13,1-15.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

말씀 길라잡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고귀한 가르침으로 당신의 유언을 장엄하게 남기실 법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평소와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당황스럽게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서 심오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여 행하여라” 빵과 포도주, 당신의 몸과 피를 전부 나누어 주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 주님이신 그분께서 허리를 굽혀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발을 몸소 씻겨 준 모범을 행하라는 것, 이보다 더 크고 잊혀지지 않는 가르침이 어디 있을까요? 당신께서 세상에 행하신 모든 일의 정점을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버림받은 이들을 섬기신 그 모습을 우리도 행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제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만찬 미사에 참여하며 그분을 제대로 ‘기억’해 보고 그분께서 이루신 바를 우리도 따라 행하길 다짐해 봅시다.

스며듦

존경

존경(respect)의 어원인 라틴어 ‘레스피치오(respicio)’에는 ‘본다’라는 의미가 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밀어붙이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 나아가서는 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경이다. 타인을 조종하려는 태도, 교정하려는 태도에는 절대 존경이 있을 수 없다.

+ 기시미 이치로 · 고가 후미타케, 『미움받을 용기 2』

새김

존경이란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이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아는 능력이다.

+ 에리히 프롬

실천 한 가지

가족과 함께 주님 만찬 미사에 참석합니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

04
19

이사 52,13—53,12 / 히브 4,14-16; 5,7-9 / 요한 18,1—19,42.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이사 53,2)

말씀 길라잡이

성전을 바라봅니다. 제대의 제대포는 벗겨져 있고 십자가는 자색 천으로 가려져 있으며 늘 빛을 밝히던 감실은 불이 꺼진 채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텅 빈 성전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익숙했기에 당연히 계시리라 생각했던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 공허한 마음까지 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면 이렇듯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빈자리를 오늘은 마음껏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주님으로 다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여정을 힘차게 걸으신 그분의 땀과 피, 저도 주님처럼 하느님의 자녀들을 위해 땀과 피를 흘릴 수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제 안에 가득 찰 것입니다.

스며듦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1654년 11월 23일. 세계 철학사에 한 획을 그었던 31세의 천재가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느님을 찾았다. 『팡세』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파스칼. 그로부터 6년 뒤 파스칼은 ‘사유의 대상인 하느님’이 아닌 ‘구원의 하느님’을 생활 속에 체험하는 가운데 삶을 마쳤다. 팡세가 죽은 다음 사람들은 그의 옷자락에 봉합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이지 철학 대상의 하느님이 아니다”.

+ 최용우

새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신앙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신앙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실천 한 가지

가족과 함께 주님 수난 예식에 참여합니다.

파스카 성야

04
20

창세 1,1-2,2 / 창세 22,1-18 / 탈출 14,15-15,1ㄱ / 이사 54,5-14 / 이사 55,1-11 / 바룩 3,9-15.32-4,4 / 에제 36,16-17ㄱ.18-28 / 로마 6,3-11 / 루카 24,1-12.

말씀
길라잡이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름다운 밤을 어떤 이들이 기쁘게 올곧이 맞이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맞이한 이들은 여인들입니다. 막달레나, 요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소박한 이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부활에는 성주간 전례를 오지 공소에서 했습니다. 성목요일부터 파스카 성야 미사까지 모두 마치니 '힘들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결에 이따금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그 노랫소리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입니다. 부스스 눈을 비비고 성전에 나가 보니 성야 미사에 참석했던 신자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밤새 성가를 부르며 아침까지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온전히 이들의 몫으로 스며들었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은 참으로 소박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몫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은 복잡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생명의 축제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스며듦

여지(餘地)

같은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지란 내 안의 빈자리입니다. 상대가 편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지가 있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편해집니다.

같은 이치로 내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마음이 힘들 땐 아직 내 마음의 여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여지를 점검하여 보십시오. 타인이 내 마음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여지를 늘리는 데 힘쓰세요.

+ 홍자성, 『채근담』

새김

베어 버리자니 풀 아닌 게 없지만 두고 보자니 모두가 꽃이더라.

+ 원효 대사

실천 한 가지

가족과 함께 파스카 성야 미사에 참석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04
21

사도 10,34ㄱ.37ㄴ-43 / 콜로 3,1-4 또는 1코린 5,6ㄴ-8 / 요한 20,1-9 또는 루카 24,1-12 또는 루카 24,13-35.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콜로 3,1)

말씀 길라잡이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참 부족한 도구인 우리지만 오늘 선포하는 이 기쁨의 ‘알렐루야’를 우리 삶 안에서 맘껏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나누고 싶습니다.

—

님의 뜻을 따라서

황혜경

언젠가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지
어느 곳에서이든 살라고 하시면
살아야지
어느 때든 죽으라고 하시면
죽어야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그렇다고 대답해야지

—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나그네인 우리 모두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여정을 걷길 기도합니다.

스며듦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엠마오 제자들의 경우처럼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마음속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 불을 지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북돋아 주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는 믿음과 더불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눈이 주어지게 됩니다.

+ 한민택, 『내맡기는 용기』



돌아섬

2019 사순 시기 묵상집

발 행 일	2019년 1월 1일
발 행 인	김준철 신부
편 집 인	장형심 수녀
편 집	문혜영, 박소라, 임미숙
발 행 처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 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동)
전 화	02)2268-7103
팩 스	02)2268-7104
E-mail	pmsk@pmsk.net
홈페이지	www.pmsk.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pmsk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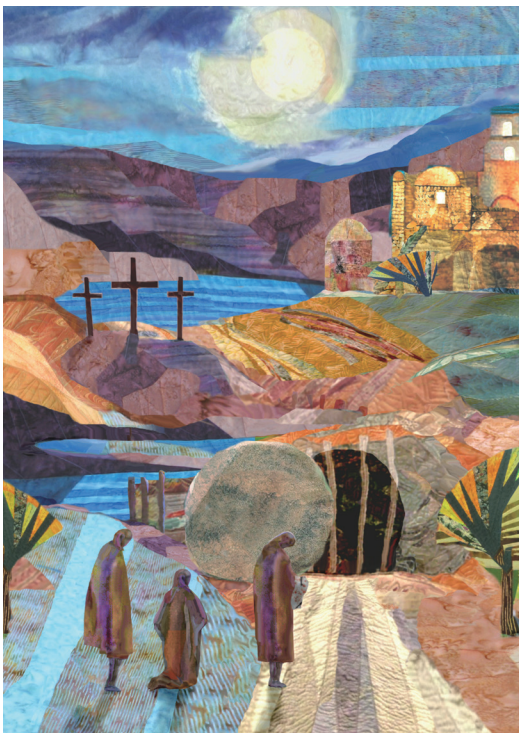
교황청 전교기구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소속으로,
선교 지역 신생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사제 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해외 선교 사제가 봉헌할 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 02)460-7609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루카 24,5-6)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